



## 이번주 미국 증시 회복 가능성

지난주 S&P500은 전주대비 1.3% 하락하면서 잭슨홀 회의 이후 반등분을 되돌림. 유가, 달러, 금리의 3중고의 불편함 확인,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애플 등 기술주 중심의 주가 조정을 유발했음. 9월 12일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으나,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국영기업으로 확산한다는 소식, 여기에 동조하는 중국 여론, 때마침 등장한 대체제인 화웨이 고성능 스마트폰 등 애플 전망에 회의적 시각 확산

중국과 무역/기술분쟁 관련 산업 영향 외에 이번주 증시 방향은 나쁘지 않을 수 있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증시 낙폭이 둔화된 배경엔 추가 금리 상승이 제한되었기 때문. 미국 10년 금리는 6일 4.27%를 고점으로 8일까지 소폭 하락.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기대 proxy인 BEI가 4bp 상승했으나, 실질금리(TIPS)가 5bp 하락하면서 상쇄, 명목 금리의 추가 상승 제한. 이번주는 주말 등장한 WSJ 기사를 필두로 최근 다시 고조된 금리인상 우려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환경

9월 10일 WSJ의 닉 티미라오스는 '연준 금리 기조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An Important Shift in Fed Officials' Rate Stance Is Under Way)'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9월 동결 이후 인상에 대해 더 신중해질 것이라는 의견 개제.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연준 내에서는 과소 인상보다 과대 인상이 낫다는 게 중론이었음. 그런데 연준 인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11월 추가 인상은 향후 인플레이에 대비한 '보험 정책'. 추가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를 반복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이 들고, 오히려 이 보험성 인상이 새로운 금융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걱정

12일 CPI 방향이 가장 중요. 헤드라인 컨센서스는 0.6% MoM(전월 0.2%)이나 코어는 0.2%(전월 0.2%). 이 외에 NFIB 소기업낙관지수, 8월 소매판매(컨센 0.1% vs 전월 0.7%)를 포함한 산업생산,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등 발표 예정인데, 컨센서스는 모두 전월대비 둔화를 기대하는 중. 유가 변동성 남아있으나 경기 눈높이 낮아지면서 추가적인 금리 우려에 따른 조정은 일단락될 가능성에 무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